

2026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142.8억 달러(+9.1%),

도착 107.3억 달러(+42.6%)

- 첨단산업 등 유망 투자 지속 및 서비스업 호조로 투자 신고 증가
- 旣 신고 프로젝트 투자 자금이 차질 없이 유입되며 투자 도착 호조세

【총괄】 2026년 상반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42.8억 달러, 도착은 42.6% 증가한 107.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글로벌 FDI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투자 신고, 도착 실적 모두 동반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신고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의 첨단산업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유망 분야에서 신규 투자도 지속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신고】 2026년 상반기 투자 신고는 142.8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였다.

【유형별】 공장, 사업장 신·증설 등을 위한 ▲**그린필드형** 투자 신고는 108.2억 달러(△1.5%)를 기록하였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으로 주춤했던 2026년 1분기 그린필드형 투자 신고(37.4억 달러, △19.8%)와 비교 시 감소세가 크게 완화되었다. 한편, 기업 지분 인수, 합병 등을 위한 ▲**M&A형** 투자 신고의 경우 34.6억 달러(+64.3%)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업종별] ▲제조업 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한 38.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 화공(11.2억 달러, △17.0%), 전기·전자(10.2억 달러, △26.5%) 등 분야를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율주행 로봇·헬스케어 등 유망 산업 투자가 유입되면서 기계장비·의료정밀(8.7억 달러, +243.1%) 분야 투자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디스플레이 등 비금속 광물제품(3.3억 달러, +34.2%) 투자 실적도 개선되었다.

▲서비스업 투자 신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90.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금융·보험(37.4억 달러, +47.9%), 부동산(16.4억 달러, +98.8%) 분야에서 투자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4.7억 달러, +24.3%) 분야에서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가별] ▲미국(30.5억 달러, △2.5%), ▲EU(20.5억 달러, △8.1%), ▲일본(14.9억 달러, △30.9%), ▲중국(14.8억 달러, △18.6%) 등 주요 투자 주체들의 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싱가포르·영국 등 국가의 투자 실적으로 ▲기타 국가(62.0억 달러, +65.4%)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투자도착] 2026년 상반기 투자 도착은 107.3억 달러를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하였다.

[유형별] ▲그린필드형 투자 도착은 44.5억 달러(△5.6%)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M&A형 투자 도착은 62.8억 달러(+123.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제조업 투자 도착은 50.0억 달러(+205.2%)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대규모 화학 프로젝트 투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면서 화공(40.9억 달러, +916.3%) 분야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디스플레이 등 비금속 광물제품(3.3억 달러, +223.2%) 투자 실적도 개선되었다.

한편, ▲서비스업 투자 도착의 경우 56.0억 달러(+1.4%)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보험(34.1억 달러, +9.3%), 부동산(6.3억 달러, +98.7%) 분야에서 실적이 개선된 반면, 도·소매(유통)(6.3억 달러, △33.1%), 정보통신(4.0억 달러, △48.4%) 분야에서는 감소하였다.

【국가별】 ▲미국 투자 도착은 1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하였지만, ▲EU(43.4억 달러, +106.1%), ▲일본(6.1억 달러, +56.5%), ▲중국(1.7억 달러, +36.0%)의 투자 실적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국가 투자 도착 또한 4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향후계획】 산업통상부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였던 2025년의 외국인 직접투자 모멘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5극3특 등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주요 계기 전략적인 국내외 IR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유치 현장 카라반,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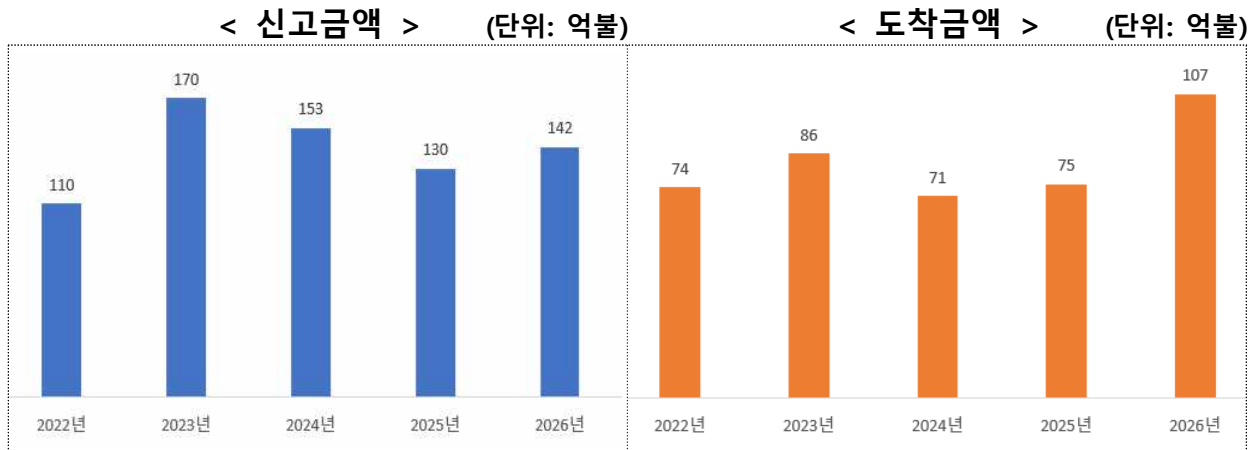
-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과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을 따름
- 본 자료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잠정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산업통상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 2026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26년 10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김정예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성제민 (044-203-4082)
			사무관	김해원 (044-203-4085)



I. 총괄

① (실적) 신고 142.8억불(전년대비 +9.1%), 도착 107.3억불(+42.6%)



② (신고) 중동정세 등 글로벌 FDI 하방 압력 지속에도 전년비 9.1% 증가

- (유형) 그린필드 108.2억불(△1.5%), M&A 34.6억불(+64.3%)
- (업종) 제조업 38.1억불(△28.4%), 서비스업 90.7억불(+27.9%)
기타 14.0억불(+104.4%)
- (국가) 美 30.5억불(△2.5%), EU 20.5억불(△8.1%),
日 14.9억불(△30.9%), 中 14.8억불(△18.6%), 기타 62.0억불(+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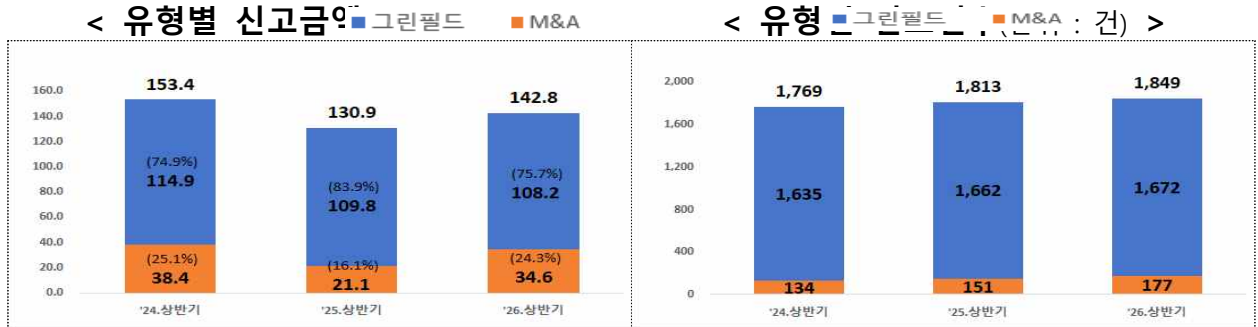
③ (도착) 既 신고 프로젝트 자금이 차질 없이 유입, 전년비 42.6% 증가

- (유형) 그린필드 44.5억불(△5.6%), M&A 62.8억불(+123.3%)
- (업종) 제조업 50.0억불(+205.2%), 서비스업 56.0억불(+1.4%)
기타 1.3억불(△63.6%)
- (국가) 美 12.8억불(△13.3%), EU 43.4억불(+106.1%),
日 6.1억불(+56.5%), 中 1.7억불(+36.0%)

II. 투자 신고 세부 동향

1.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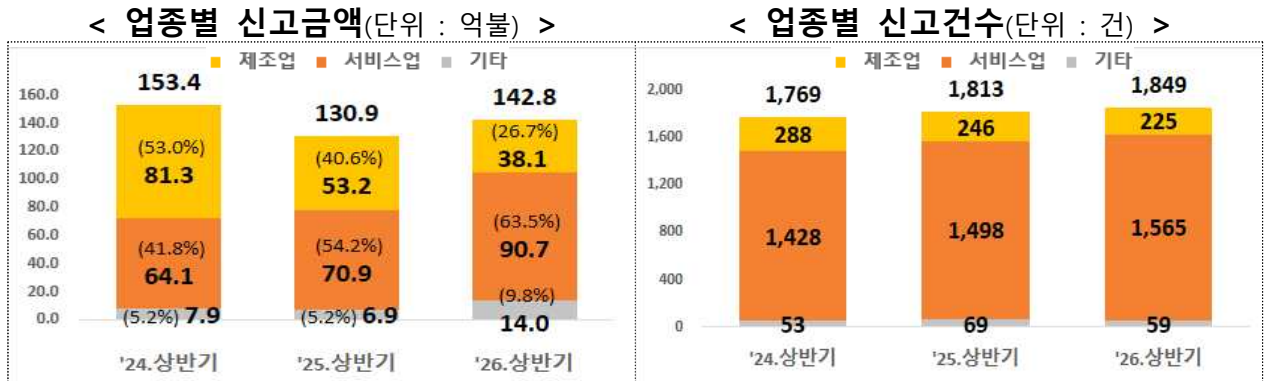
- (금액) 그린필드형(108.2억불, △1.5%, 비중 75.7%) 감소, M&A형(34.6억불, +64.3%, 비중 24.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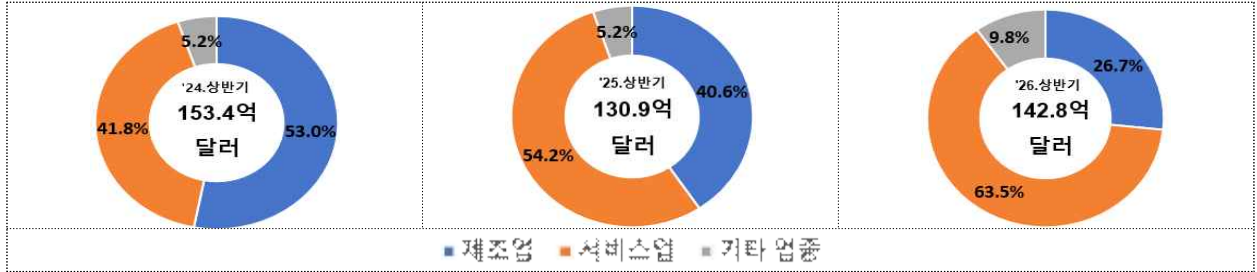
- (그린필드형) 108.2억불(전년비 △1.5%)
 - 제조업(35.2억불, △28.1%) 감소, 서비스업(59.1억불, +8.8%) 증가
- (M&A형) 34.6억불(전년비 +64.3%)
 - 제조업(2.9억불, △31.3%) 감소, 서비스업(31.6억불, +90.6%) 증가
- (건수) 그린필드(1,672건, +0.6%), M&A(177건, +17.2%) 모두 증가

2. 업종별

- (금액) 제조업(38.1억불, △28.4%, 비중 26.7%) 감소, 서비스업(90.7억불, +27.9%, 비중 63.5%)·기타업종(14.0억불, +104.2%, 비중 9.8%) 증가
- * 기타업종 : 1차산업(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 업종별 FDI 비중 >



○ (제조업) 38.1억불(전년비 △28.4%, 비중 26.7%)

< '25년 상반기 신고액 >

< '26년 상반기 신고액 >



- (증가) 기계장비·의료정밀(8.76억불, +243.1%), 비금속 광물(3.33억불, +34.2%), 기타 제조(0.18억불, +234.6%) 등
- (감소) 화공(11.21억불, △17.0%), 전기·전자(10.20억불, △26.5%), 식품(1.94억불, △49.9%) 등

○ (서비스업) 90.7억불(전년비 +27.9%, 비중 63.5%)

< '25년 상반기 신고액 >

< '26년 상반기 신고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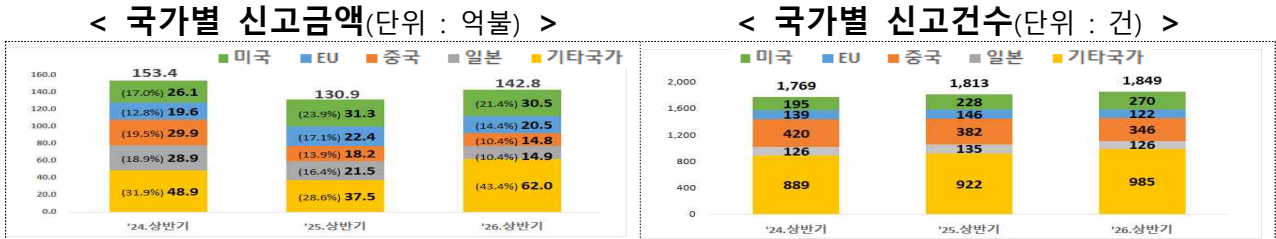
- (증가) 금융·보험(37.45억불, +47.9%), 부동산(16.40억불, +98.8%), 도·소매(유통)(14.00억불, +6.0%) 등
- (감소) 정보통신(9.48억불, △12.9%), 운수·창고(1.80억불, △47.6%), 공공·기타서비스(1.31억불, △19.7%) 등

□ (건수) 제조업(225건, △8.5%)·기타업종(59건, △14.5%) 감소, 서비스업(1,565건, +4.5%) 증가

3. 국가별

(* EU : 영국 제외 27개국)

- (금액) 기타국가(62.0억불, +65.4%, 비중 43.4%) 증가, 미국(30.5억불, △2.5%, 비중 21.4%)·EU(20.5억불, △8.1%, 비중 14.4%)·중국(14.8억불, △18.6%, 비중 10.4%)·일본(14.9억불, △30.9%, 비중 10.4%) 감소



- (미국) 30.5억불(전년비 △2.5%, 비중 21.4%)
 - (업종별) 제조업(7.9억불, △17.6%) 감소, 서비스업(22.6억불, +5.9%)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29.1억불, △2.7%) 감소, M&A(1.5억불, +2.3%) 증가
- (EU) 20.5억불(전년비 △8.1%, 비중 14.4%)
 - (업종별) 제조업(8.2억불, △5.0%), 서비스업(4.2억불, △64.0%) 모두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19.3억불, +23.4%) 증가, M&A(1.3억불, △81.1%) 감소
- (일본) 14.9억불(전년비 △30.9%, 비중 10.4%)
 - (업종별) 제조업(2.9억불, △84.3%) 감소, 서비스업(12.0억불, +274.6%)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12.0억불, △43.3%) 감소, M&A(2.9억불, +765.1%) 증가
- (중국) 14.8억불(전년비 △18.6%, 비중 10.4%)
 - (업종별) 제조업(4.8억불, △43.1%), 서비스업(5.3억불, △38.4%) 모두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13.0억불, △28.6%) 감소, M&A(1.9억불, +2,704.1%) 증가
- (기타국가) 62.0억불(전년비 +65.4%, 비중 43.4%)
 - (업종별) 제조업(14.3억불, +74.6%), 서비스업(46.5억불, +79.0%) 모두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34.9억불, +39.4%), M&A(27.1억불, +117.3%) 모두 증가
- (건수) 미국(270건, +18.4%)·기타국가(985건, +6.8%) 증가, EU(122건, △16.4%)·중국(346건, △9.4%)·일본(126건, △6.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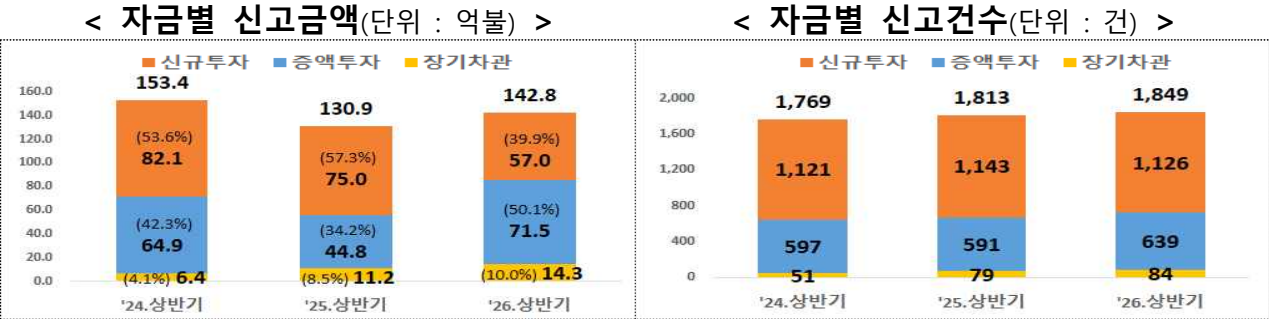
4. 자금별

□ (금액) 증액투자(71.5억불, +59.6%, 비중 50.1%)·장기차관(14.3억불, +27.9%, 비중 10.0%) 증가, 신규투자(57.0억불, △24.0%, 비중 39.9%) 감소

* 신규투자 : 외국인이 최초로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신규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 참여)하거나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

증액투자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국내기업이 ①동일 외국투자가 또는 ②새로운 외국인으로부터 추가로 투자 취득, ③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

장기차관 :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신규투자) 57.0억불(전년비 △24.0%)

- 제조업(16.6억불, △55.7%), 서비스업(35.2억불, △1.3%) 모두 감소

○ (증액투자) 71.5억불(전년비 +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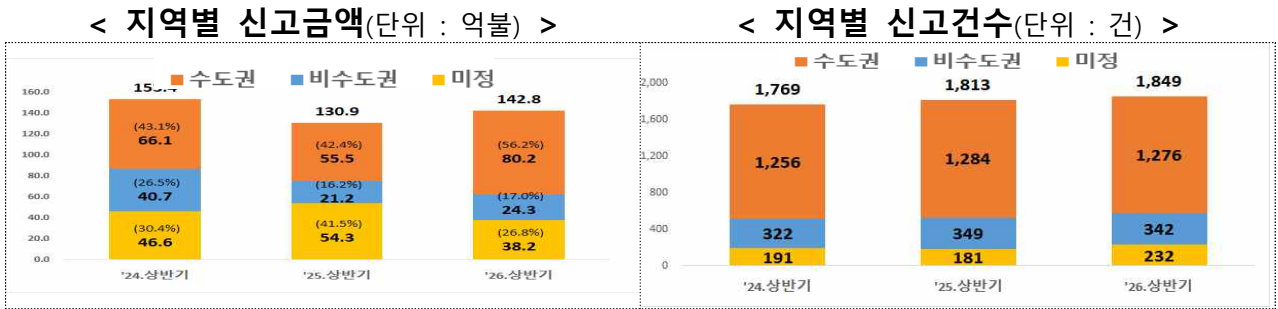
- 제조업(16.3억불, +19.2%), 서비스업(46.4억불, +62.7%) 모두 증가

□ (건수) 신규투자(1,126건, △1.5%) 감소, 증액투자(639건, +8.1%) 증가

5. 지역별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非수도권 : 이외 14개 시·도
- 미정(38.2억불) :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금액) 수도권(80.2억불, +44.7%, 비중 56.2%)·非수도권(24.3억불, +15.0%, 비중 17.0%) 증가, 투자지역 미정(38.2억불, △29.6%, 비중 26.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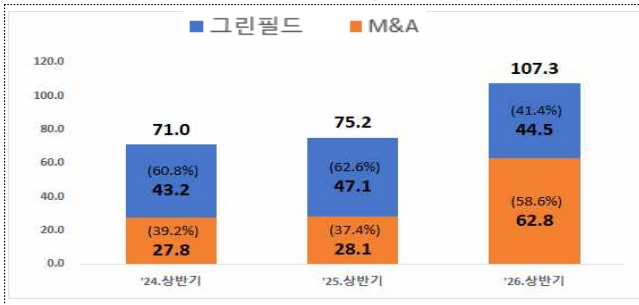
- (수도권) 80.2억불(전년비 +44.7%)
 - 제조업(12.3억불, +26.5%), 서비스업(64.4억불, +47.6%) 모두 증가
 - * 서울(67.9억불, +76.7%), 인천(1.0억불 △80.4%), 경기(11.2억불, △3.5%)
- (非수도권) 24.3억불(전년비 +15.0%)
 - 제조업(12.2억불, △2.7%) 감소, 서비스업(6.3억불, +25.3%) 증가
 - * 증가 시·도 : 충남(5.48억불, +160.3%), 울산(5.42억불, +768.4%), 충북(3.68억불, +72.0%), 전북(2.84억불, +1,263.2%), 광주(2.40억불, +5,196.3%), 강원(0.93억불, +58.6%), 제주(0.12억불, +127.6%),
 - * 감소 시·도 : 세종(1.01억불, △13.0%), 대전(0.61억불, △58.1%), 경북(0.58억불, △57.9%), 전남(0.50억불, △70.5%), 경남(0.48억불, △83.0%), 부산(0.15억불, △97.7%), 대구(0.12억불, △19.6%),
- (건수) 수도권(1,276건, △0.6%), 非수도권(342건, △2.0%) 모두 감소

Ⅲ. 투자 도착 세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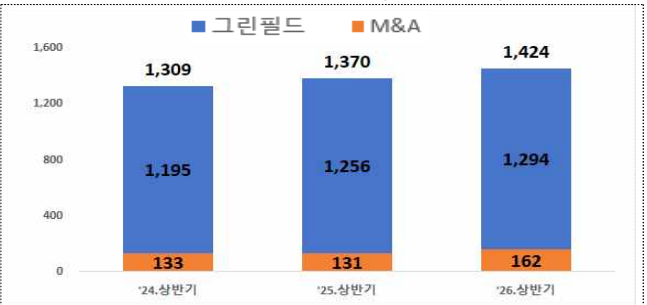
1. 유형별

□ (금액) 그린필드형(44.5억불, △5.6%, 비중 41.4%) 감소, M&A형(62.8억불, +123.3%, 비중 58.6%) 증가

< 유형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유형별 도착건수(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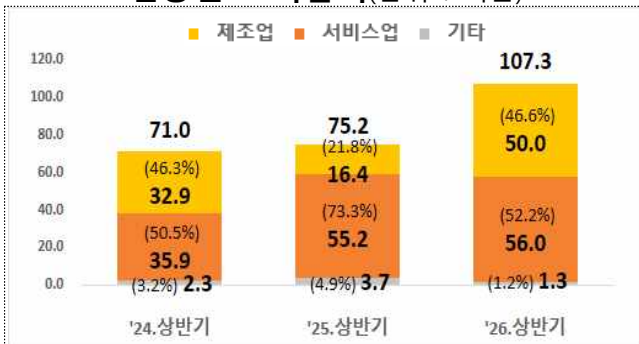
- (그린필드형) 44.5억불(전년비 △5.6%)
 - 제조업(16.7억불, +32.9%) 증가, 서비스업(26.5억불, △14.3%) 감소
- (M&A형) 62.8억불(전년비 +123.3%)
 - 제조업(33.2억불, +776.4%), 서비스업(29.4억불, +21.6%) 모두 증가
- (건수) 그린필드(1,294건, +3.0%), M&A(162건, +23.7%) 모두 증가

2. 업종별

□ (금액) 제조업(50.0억불, +205.2%, 비중 46.6%)·서비스업(56.0억불, +1.4%, 비중 52.2%) 증가, 기타업종(1.3억불, △63.6%, 비중 1.2%) 감소

* 기타업종 : 1차산업(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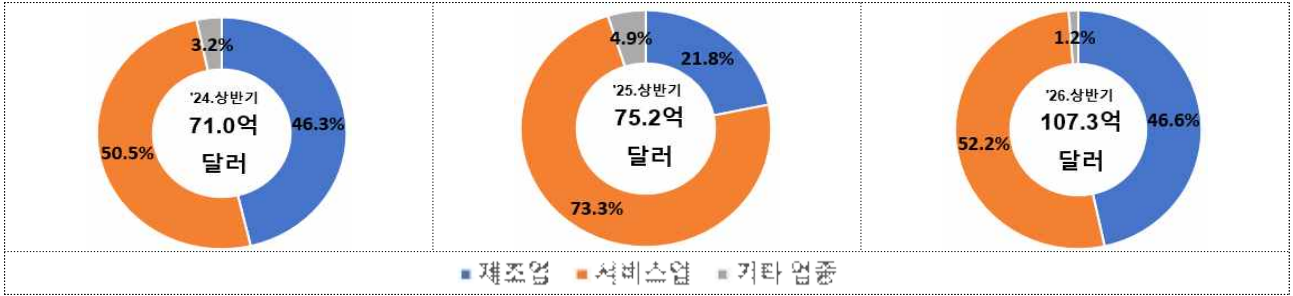
< 업종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업종별 도착건수(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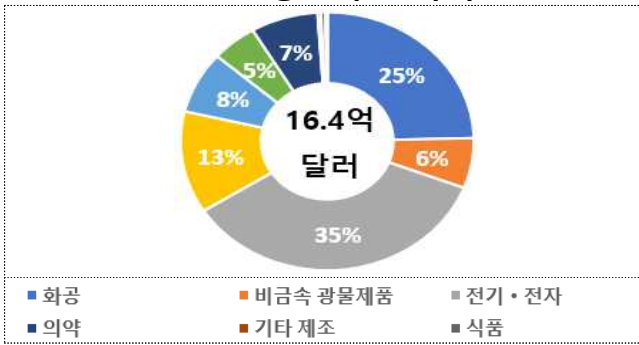


< 업종별 FDI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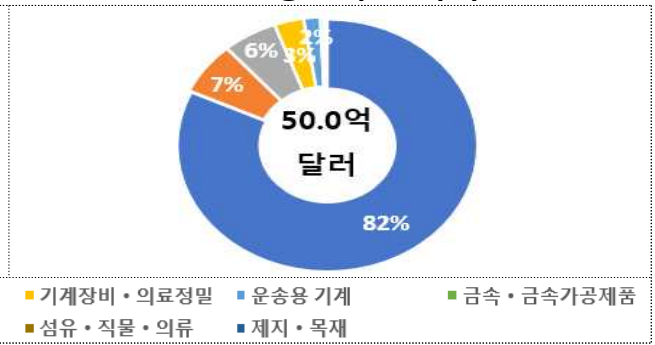


○ (제조업) 50.0억불(전년比 +205.2%, 비중 46.6%)

< '25년 상반기 도착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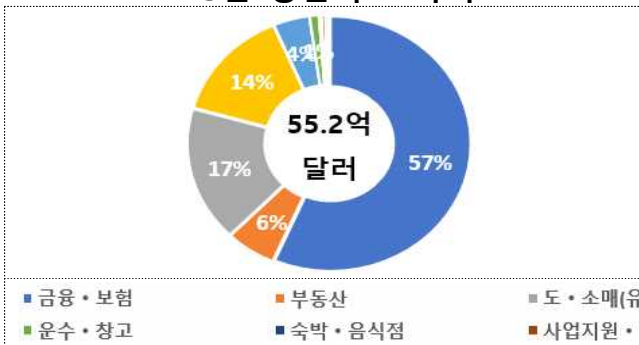
< '26년 상반기 도착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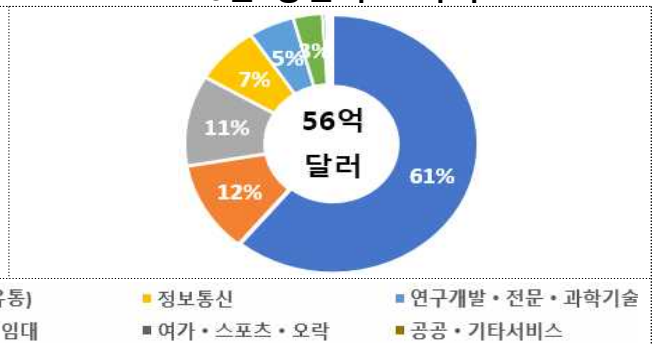
- (증가) 화공(40.94억불, +916.3%), 비금속광물(3.33억불, +223.2%) 등
- (감소) 전기·전자(2.92억불, △49.2%), 기계장비·의료정밀(1.57억불, △24.9%), 운송용기계(0.88억불, △30.6%) 등

○ (서비스업) 56.0억불(전년比 +1.4%, 비중 52.2%)

< '25년 상반기 도착액 >



< '26년 상반기 도착액 >



- (증가) 금융·보험(34.10억불, +9.3%), 부동산(6.33억불, +98.7%),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2.83억불, +22.7%) 등
- (감소) 도·소매(유통)(6.33억불, △33.1%), 정보통신(4.04억불, △48.4%), 사업지원·임대(0.15억불, △38.3%) 등

□ (건수) 제조업(173건, +1.8%)·서비스업(1,207건, +4.9%) 증가, 기타업종(46건, △17.9%) 감소

3. 국가별

(* EU : 영국 제외 27개국)

- (금액) 미국(12.8억불, △13.3%, 비중 12.0%) 감소, EU(43.4억불, +106.1%, 비중 40.5%)·중국(1.7억불, +36.0%, 비중 1.6%)·일본(6.1억불, +56.5%, 비중 5.7%)·기타국가(43.2억불, +26.4%, 비중 40.3%) 증가



- (미국) 12.8억불(전년비 △13.3%, 비중 12.0%)
 - (업종별) 제조업(3.6억불, △29.1%), 서비스업(9.2억불, △5.2%) 모두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11.6억불, △16.4%) 감소, M&A(1.2억불, +33.1%) 증가
- (EU) 43.4억불(전년비 +106.1%, 비중 40.5%)
 - (업종별) 제조업(38.7억불, +546.1%) 증가, 서비스업(4.5억불, △65.7%)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10.5억불, △22.1%) 감소, M&A(32.9억불, +333.0%) 증가
- (일본) 6.1억불(전년비 +56.5%, 비중 5.7%)
 - (업종별) 제조업(2.0억불, +29.4%), 서비스업(4.1억불, +73.6%) 모두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3.0억불, △15.8%) 감소, M&A(3.1억불, +852.4%) 증가
- (중국) 1.7억불(전년비 +36.0%, 비중 1.6%)
 - (업종별) 제조업(1.3억불, +65.5%) 증가, 서비스업(0.4억불, △15.2%)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0.6억불, △48.8%) 감소, M&A(1.1억불, +566.6%) 증가
- (기타국가) 43.2억불(전년비 +26.4%, 비중 40.3%)
 - (업종별) 제조업(4.5억불, +46.7%), 서비스업(37.8억불, +27.7%) 모두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18.8억불, +24.5%), M&A(24.4억불, +27.9%) 모두 증가
- (건수) 미국(180건, +9.8%)·일본(104건, +8.3%)·기타국가(756건, +5.9%) 증가, EU(112건, △8.2%)·중국(272건, △0.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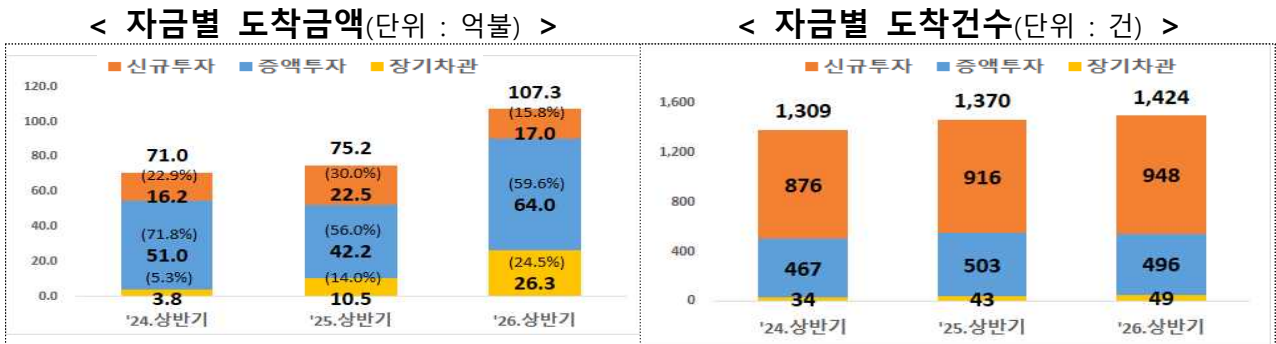
4. 자금별

- (금액) 증액투자(64.0억불, +51.7%, 비중 59.6%)·장기차관(26.3억불, +150.0%, 비중 24.5%) 증가, 신규투자(17.0억불, △24.6%, 비중 15.8%) 감소

* 신규투자 : 외국인이 최초로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신규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 참여)하거나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

증액투자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국내기업이 ①동일 외국투자가 또는 ②새로운 외국인으로부터 추가로 투자 취득, ③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

장기차관 :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신규투자) 17.0억불(전년비 △24.6%)

- 제조업(2.1억불, △24.2%), 서비스업(14.7억불, △25.0%) 모두 감소

- (증액투자) 64.0억불(전년비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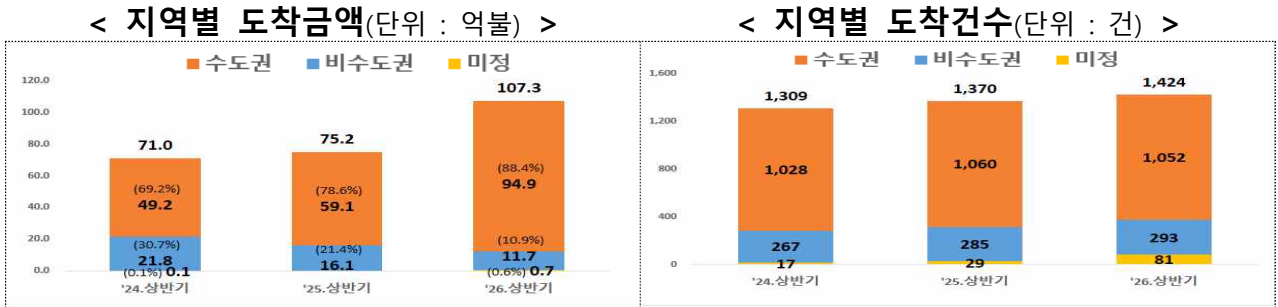
- 제조업(29.7억불, +178.6%), 서비스업(33.1억불, +16.2%) 모두 증가

- (건수) 신규투자(948건, +3.5%) 증가, 증액투자(496건, △1.4%) 감소

5. 지역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非수도권 : 이외 14개 시·도 /
미정(0.7억불) :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도착한 경우

- (금액) 수도권(94.9억불, +60.5%, 비중 88.4%)·투자지역 미정(0.7억불, +2,434.8%, 비중 0.6%) 증가, 非수도권(11.7억불, △27.3%, 비중 10.9%) 감소



○ (수도권) 94.9억불(전년비 +60.5%)

- 제조업(41.4억불, +447.8%), 서비스업(52.4억불, +5.4%) 모두 증가

* 서울(85.3억불, +85.6%), 인천(1.2억불 △60.8%), 경기(8.3억불, △17.0%)

○ (非수도권) 11.7억불(전년비 △27.3%)

- 제조업(8.6억불, △2.8%), 서비스업(2.9억불, △47.1%) 모두 감소

* 증가 시·도 : 충남(5.16억불, +148.6%), 전북(1.16억불, +368.9%), 강원(1.01억불, +42.4%), 대구(0.44억불, +10.6%), 제주(0.12억불, +172.1%), 광주(0.07억불, +71.8%)

* 감소 시·도 : 세종(1.00억불, △15.7%), 경남(0.56억불, △28.9%), 대전(0.52억불, △64.5%), 경북(0.50억불, △47.7%), 전남(0.50억불, △72.1%), 충북(0.44억불, △80.2%), 부산(0.19억불, △94.3%), 울산(0.03억불, △96.1%),

- (건수) 수도권(1,052건, △0.8%) 감소, 非수도권(293건, +2.8%) 증가